손기정의 민족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of National Consciousness Son Kee Chung's

손 환 · 하정희* 중앙대학교
Son, Hwan · Ha, Jung-Hee *Chung-Ang Univ.*

요약

이 연구는 베를린올림픽대회를 통해서 손기정의 민족의식이 어떻게 발아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과 잡지, 사진, 자서전, 인터뷰 등을 주된 자료로 사용해 베를린올림픽대회 이전 손기정의 민족의식, 베를린올림픽대회와 손기정의 민족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양정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 응원사건으로 인한 조선총독부의 정학처분은 손기정의 민족의식이 싹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손기정은 베를린올림픽대회 우승 후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보며 조국에 대한 개념을 자각했으며 한국인과 한글이름 사인으로 민족의식을 표출하면서 형성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how Son kee Chung's national consciousness germinated and formed through the Berlin Olympic Games. It is based primarily on newspapers, magazines, pictures, biographies, and interviews. With a focus on the national consciousness of Son Kee Chung before and after Berlin Olympic Games. I reached this conclusion. The Choseon Government General(조선총독부) decision to suspend Son Kee Chung for applause and cheering event gave crucial momentum to his sense of nationalistic pride. When he saw his national flag, Taegukgi, for the first time, he realized what it meant to be Korean and demonstrated his love of country by Korean signature.

Key words: son kee chung, national consciousness, berlin olympic games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017).
* hjhgreen77@hanmail.net

서론

조국 없는 마라토너, 비운의 러너의 주인공 등으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한국마라톤계의 영웅이며 한국육상계의 영웅, 나아가 한국스포츠계의 영웅인 손기정.

손기정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당시 인간의 체력한계라고 불리는 2시간 30분대의 벽을 돌파하고 올림픽신기록을 수립하며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당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민족의 울분을 토로하고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우수성과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손기정의 우승은 한국마라톤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이면서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다. 또한 일본마라톤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손기정은 한국은 물론 일본마라톤계에도 뚜렷한 흔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2011년 손기정은 한국스포츠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체육인들 중에서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평가되어 대한체육회의 스포츠영웅에 선정되었다(경인일보 2011. 9. 21). 그리고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2012년에는 베를린올림픽 우승으로 받은 금메달, 우승 상장, 월계관은 체육사 · 민족사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를 받아 문화재로 등록되었다(조선일보 2012. 2. 10). 이처럼 손기정이 한국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생전의 업적은 사후에도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손기정의 스포츠 활동을 지탱하고 유지시킨 그의 민족의식을 베를린올림픽대회를 통해 검토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비록 손기정이 베를린올림픽대회에 일본대표로 출전했지만 우승 후 외국 언론의 인터뷰나 외국인의 사인 요청에 주저 없이 한국인임을 자처한 그의 민족의식에 대한 검토는 손기정이라는 인물의 파악은 물론 한국체육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손기정의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제패가 우리민족에게 주는 민족사적 의의와 일장기말소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정찬모, 1997; 이인숙, 1996). 또한 손기정의 생애와 활동, 사상에 대한 내용도 밝히고 있다(황영조, 1998; 손환, 2004).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손기정의 민족의식이 발아된 계기와 형성된 경위,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시 발행된 신문과 잡지, 사진, 자서전, 인터뷰 등을 주된 자료로 사용해 손기정의 민족의식이 어떻게 발아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손기정의 민족의식 발아

손기정이 공식대회에 처음 출전한 대회는 1931년 10월에 개최된 제7회 조선신궁경기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손기정은 평안북도 대표로 출전해 5,000 m에서 16분 18초 5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京城日報 1931. 10. 17). 이에 대한 사실은 <그림 1>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승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에 "오른쪽이 5천미 1착 평북 손기정군"이라고 되어 있으며 당시 앳된 손기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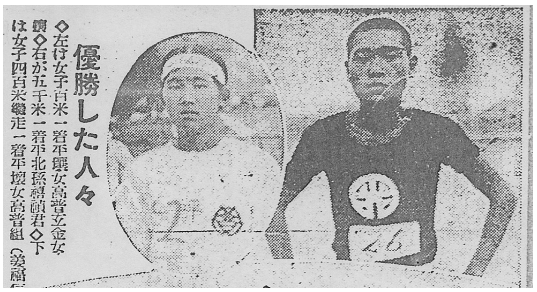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손기정(우)
출처: 경성일보 1931년 10월 17일자

이 대회에서 손기정은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김은배가 마라톤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고 모두들 떠들썩했다. 이에 대해 손기정은 다음과 같이 굳은 결심을 했다.

저로서는 첫大會였었는데 뜻밖에 優勝을 하니 기쁜듯

하면서도 어쩐지 매우 어색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金恩培氏가 마라손에世界記錄을 作成하고 그名聲이사람들의 입에 膾炙하였을때였읍니다. 저는 故鄕一隅에서 金恩培氏같이 한번 世界記錄을 突破하여 보리라고 속깊이 決心하고는 꾸준히 練習을 繼續하여 왔습니다(孫基禎, 1936).

이와 같이 손기정은 처음으로 출전한 공식대회에서 우승과 더불어 마라톤을 처음 알게 되면서 세계기록에 도전해보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그의 목표는 후일 올림픽 마라톤제패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32년 3월 손기정은 마라톤 데뷔전을 치르기 위해 고려육상경기회 주최의 경영(京永)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했다(동아일보 1932. 3. 22). 지금까지 한 번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었던 손기정은 학교운동부에 들어가면 훨씬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시 육상의 명문인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孫基禎, 1983).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손기정은 1933년 미국의 권태하(제10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 마라톤 출전)에게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는 손기정이 정식 마라토너가 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권선배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 경성에서 함께 연습했고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손기정군 나는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실패했네.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나는 손군과 함께 연습하면서 손군이 가진 뛰어난 마라톤 소질을 보았네. 손군이라면 틀림없이 세계마라톤을 제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지금부터라도 어떤가 정식 마라톤을 시작하게. 그래서 꼭 세계마라톤을 제패해 저 일본 사람들의 콧대를 눌러 주게(孫基禎, 1983).

라고 했다. 이와 같이 권태하는 손기정의 타고난 마라톤 자질을 간파하고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해 일본인들의 기를 누르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던 것이다.

권태하의 편지는 손기정의 인생 최대의 목표를 베를린올림픽으로 삼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鎌田忠良, 1988). 이렇게 해서 그동안 정규마라톤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손기정은 이를 계기로 정식 마라토너가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의 목표도 김은배, 권태하가 실패한 올림픽 마라톤 우승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손기정의 양정고등보통학교 입학은 마라톤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도 분수령이었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손기정의 양정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은 올림픽제패의 목표 및 실현은 물론 민족의식도 싹트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손기정의 민족의식은 1935년 양정고등보통학교 4학년 여름방학 후 경성운동장에서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와 제일고등여학교 농구시합의 응원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 응원사건이란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가 일본인 학교인 제일고등여학교를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양정고등보통학교 육상부가 열렬하게 응원을 했는데 심판이 시합도중 일방적으로 경기를 중단시켰다. 이에 손기정은 항의를 했으나 결국 시합은 속개되지 못했다. 이 일로 손기정은 불량한 조선 학생이 되어 1주일의 정학처분을 받게 되었다(孫基禎 1976. 1. 10).

이 사건은 손기정의 민족의식을 싹트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손기정은 일본인 작가 가마다(鎌田忠良)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조선총독부는 지배자인 일본인에 대해 반항적 태도를 취한 「불량 조선학생」을 불러 호통을 치고 정학처분을 내린 일로 만족의 웃음을 띠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조선청년의 민족의식을 불타오르게 하고 크게 분개시킨 것은 알아채지 못했다(鎌田忠良, 1988).

이 사건은 손기정이 가지고 있는 민족애를 느끼게 하는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즉 비록 경기는 중단되었었지만 조선인 선수에 대한 응원, 일본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정학처분은 조선청년 손기정에게 민족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손기정의 민족의식을 확인할 수 있고 조국애

를 일깨워 준 것은 1935년 11월 올림픽후보 선발전을 겸해 열린 제8회 메이지신궁경기대회였다. 이때 손기정은 지난여름 정학처분의 굴욕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좋아 오늘은 죽을 각오로 달린다. 일본인에게 백의민족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다"고 결심했다(鎌田忠良, 1988).

이 대회에서 손기정은 2시간 26분 42초라는 경이적인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을 차지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손기정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全日本總精銳四十餘名이 출발하야 서로 빼스트를 다하야 뛰었는데 應援自動車가 八台나 따르고 沿路에 朝鮮同胞가 激烈히 응원하여주어서 더욱 元氣百倍이였습니다. 마라손은 가장 人氣焦點의 種目이므로 近十餘萬名의 觀衆이 물밀듯 몰리고 야단들이었습니다. 結局 競技場에 도라왔을때에는 그저 無我夢中으로 꼴에 도착하였습니다. 뒤에 들으니까 百米나 二百米를 다리는 듯한 速力으로 달렸다합니다. 조금있다가 들으니 世界最高記錄突破라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는데 저가 꿈꾸는 目的을 達한지라 그 瞬間에 말할수없이 기뻤습니다(新東亞社編輯部, 1936).

손기정은 조선동포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는데 실제로는 일본에 정학처분의 굴욕을 되갚고 조선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한 굳은 결심이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처럼 손기정은 당시 일제강점기 국가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는데 이는 비록 조선인으로서 올림픽에는 일본대표로 출전하지만 조선민족의 우월성을 올림픽이라는 무대의 장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 대회에 임한 손기정의 회고담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 모든 競技를 하는데 日本人들의 優越感과 교만한 태도에 대한 반발심의 發露라고 할까? 더군다나 마라톤競技는 個人競技로 2시간 이상 뛰는데 아무리 교만한 日本人들이라도 앞서 뛰는데는 도리가 없지 않은가? 만약 團體競技라면 내 性格으로는 日人과 싸움도 많이 하였을 것이고 올림픽출전은 꿈도 꾸지 못하였을 것이다(李丙權, 1983).

여기서 메이지신궁경기대회에 대해 살펴보면 이 대회는 메이지 천황의 성덕을 기리고 국민의 체력 향상과 정신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24년부터 1943년까지 19년 동안 개최되었다(加藤博夫, 1984). 이러한 성격의 대회에 손기정이 참가한 것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국제경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예선, 즉 일본인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1919) 주최의 조선신궁경기대회(1925-1944)에서 우승해 조선대표가 된 후 일본에 건너가 최종 예선전인 메이지신궁경기대회나 전 일본선수권대회를 통해 일본선수들과 재차 경쟁을 해서 최종적으로 출전권을 획득해야만 일본대표선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기정의 메이지신궁경기대회 참가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모순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식민지 통치하 비록 일본대표 선수가 되지만 조선인으로서 올림픽 등의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해 조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그림 2>의 좌측은 손기정이 올림픽후보 선발전에서 역주하는 모습이고 우측은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후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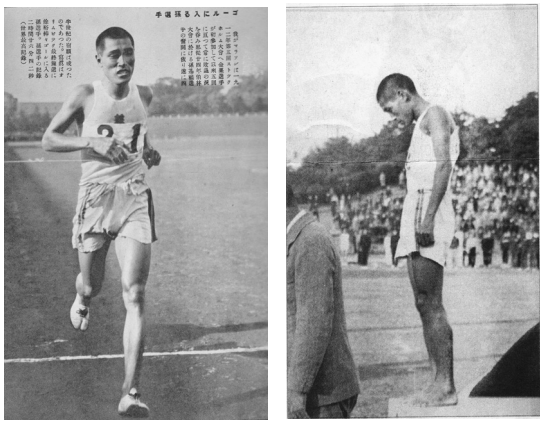

그림 2. 손기정의 역주모습과 시상대의 광경

출처: 陸上競技研究會(1936). 陸上競技 9(12). 一成社. 10(좌), 스포츠투데이 2002년 11월 16일자(우)

시상대에 선 것은 1위 손기정 혼자였는데 그 이유는 세계신기록을 축하하고 기미가요(君が代)를 연주하기 위해서였다. 이 모습에 대해 당시 1935년 11월 4일자 호치신문(報知新聞)은 “필드의 시상대에 오른 손기정은 너무 감격해 고개를 숙이고 스탠드의 관중이 국가를 합창하는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鎌田忠良, 1988).

그러나 연주가 끝나자 손기정은 당시 인솔교사였던 김연창에게 한국말로 선생님! 선생님! 외치면서 왜 우리나라는 국가가 없습니까? 왜 기미가요가 조선의 국가입니까! 라고 분개했다(鎌田忠良, 1988).

손기정이 마라톤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후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그가 울면서 호소한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베를린올림픽대회 우승 후 사인에 대해 국명을 “KOREA”라 하고 이름도 “손긔졍”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손기정의 국명과 한글이름 사인에 대한 민족의식은 올림픽 우승 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올림픽 이전에 이미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기정의 민족의식 형성

1. 베를린올림픽대회

근대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가장 화려한 대회라고 불리는 베를린올림픽대회는 1936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히틀러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히틀러가 독일의 힘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고 한 대회였다. 참가국은 49개국으로서 지금까지 올림픽의 최고를 기록했으며 올림픽 기록영화의 제작, 성화 릴레이도 이 대회부터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레니 리펜슈탈(Leni Riefenstahl)이 만든 기록영화 “민족의 제전”. “미의 제전”은 불후의 명작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또한 성화 릴레이는 고대올림픽의 고향인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태양광선으로 채화해 베를린까지 약 3,000km를 육로로 운반한 장대한 스펙터클이었다. 그러나 이 성화 릴레이 계획의 배경에는 독일이 나중에 발칸반도 침공 작전에 대비해 정찰을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 이 대회의 영웅은 미국의 흑인선수 제시 오웬스였다. 그는 100m, 200m, 넓이 뛰기, 400m 계주의 4종목에서 우승했다. 불과 1주일에 이 4종목의 예선, 준결승, 결승 등 13번 출전해 전부 올림픽신기록을 수립했다. 제시 오웬스가 경기장에 모습을 나타낼 때마다 11만명 수용의 스탠드는 환호의 소리가 울려 퍼져 신문에는 영광의 1주일이라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화려한 이 대회에도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소리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독일은 대회 2개월 후 영국, 프랑스에 대행하는 독일, 이탈리아와 구축을 결성했다(加藤博夫, 1984).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베를린올림픽대회에는 마라톤의 손기정과 남승룡을 비롯해 축구의 김용식, 농구의 장이진, 염은현, 이성구, 권투에 이규환 등 전부 7명의 조선청년들이 일본대표로 출전했다. 특히 베를린올림픽대회는 한국인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탄생, 일장기말살사건 등으로 한국올림픽사, 나아가 한국근대스포츠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다.

2. 손기정의 민족의식

베를린올림픽대회에 출전하기 직전 손기정은 자신의 심정에 대해 삼천리사의 김동환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競技場에 나서니 가슴은 두근거리고 焦燥한 마음은 이로 形容할수없어요. 民族의 鬪爭이니만치 이 祭典에서 慘敗한다는것은 나 一個人의 慘敗가 아니고 내民族全體의 慘敗인것만 같애서 이 무거운 짐을 걸머진 나는 아무리 많은 世界記錄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練習을 했다고 할지라도 最後의 鬪爭場에 나서니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金東煥, 1940).

이처럼 손기정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좋은 성적을 거두어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면서도 그 중압감에 매우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신보다는 민족 전체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36년 8월 9일 손기정을 비롯해 28개국 51명이 마라톤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기 위해 모여들어 스타트라인에 정렬하자 출발신호가 울렸다(朝鮮日報社編輯部, 1936). 결승 테이프를 끊은 시간은 2시간 29분 19초 2, 올림픽에서 2시간 30분대의 벽을 넘은 올림픽신기록이었다. <그림 3>은 당시 손기정이 역주하는 모습을 캐리커처로 묘사한 것인데 거기에는 "스포츠맨 캐리커처, 올림픽챔피언 손기정선수"라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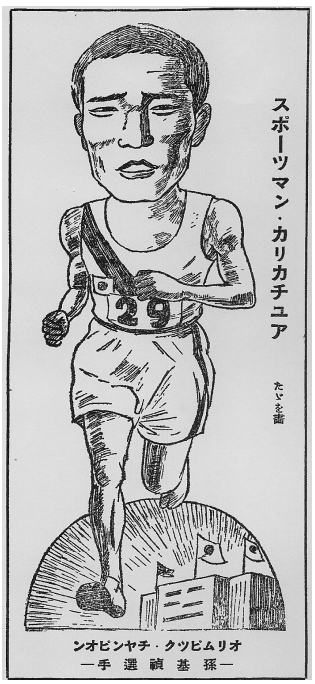

그림 3. 올림픽챔피언 손기정선수

출처: 陸上競技研究會(1936). 伯林オリムピックの全貌. 一成社. 197.

올림픽 우승 후 손기정의 심정은 당시 조선일보 도쿄지국장인 김동진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 전략 …남형(남승룡)과 내가 이긴것만은 다행이요 깃브기도 깃브나 실상은 웬일인지 이기고나니 깃븜보다도 알지못할설음만이 가슴에 북바쳐올으며 울음만이 나옵니다. 남형도 역시나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둘이서 사람없는 곳에가서 남몰래 서로붓들고 몇 번인가 울었습니다(朝鮮日報社編輯部, 1936).

라고 해 손기정은 우승 후 기쁨보다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동안의 가난과 절망, 우정과 배려, 민족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교차해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한다.

손기정의 우승에 대해 당시 국내의 각 언론사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감격, 또감격! 오직흥분의 바다에 젊은조선의 영예를 위하야 생명을 바칠세라, 고군분투, 난코스라고일컷든 난코스난항의 격전을 하면서 당당 전세계의 각기자기 조국을 위하야 명예를 걸고나선 三十여마라손五十六선수를 닥치는대로 잡아제치고 우리의젊은 두마라손너는 천하의 개가를 근역의땅에로 가져왓다! …중략… 그뿐이랴 천추만대에 이인류로서의 최대영예로 최고의힘인 마라손승자라 기념코저 백림의 성전장마라손탑에 우승자의 동상을 세우게되엇으니 우리손군의 빛나는 개가, 저-구라파의 복판, 독일에서 영원불멸의 올림피아사상에 성화와함께 빛나리라(동아일보 1936. 8. 11).

이와 같이 각 언론에서는 손기정이 인류의 최대영예인 올림픽 마라톤에서 각국의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해 민족의 영예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손기정의 우승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축전의 쇄도는 물론 학자금 보장, 기념탑 및 체육관 건립, 동상 건립, 구두 제공, 축하공연 등이 행해졌는데 이를 통해 당시 국민들의 성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동아일보 1936. 8. 12, 森田芳夫). 손기정의 올림픽 마라톤우승은 한민족으로서 조선인의 승리였지만 나라 없는 설움을 다시 느끼게 했다. 이에 대해 손기정은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 올림픽연주단이 불어대던 일본국가가 끝나가고 있었다. 내가 일본마라톤 올림픽예선전에서 세계기록을 세웠을 때 東京국립경기장에서 들었던 일본국가가 나를 위해 두 번째 울려 퍼진 순간이었다. 껍데기는 일장기(日章旗)로 되어있었지만 알맹이는 분명히 한민족(韓民族)이었고 「조센진」의 외로움이 우승을 향한 집념에 더욱 불을 지른 것도 사실이지만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을 다시 한 번 나라 없는 설움이 「찬란한 슬픔」이 되어 코밑을 찡하게 울려왔다. 차라리 우승을 하지 못했다면 눈물을 흘리지

는 않았을 거다(孫基禎, 1976. 1. 22).

한편 손기정은 우승 후 현지의 사람들에게 사인을 요청 받았는데 이때 국명을 "JAPAN"이 아니라 "KOREA"로, 이름도 "孫基禎"이 아니라 "손긔졍"이라고 해주었다. 이것은 전년도 올림픽후보 선발전에서 국가가 없는 설움을 느끼며 분개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처럼 손기정은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우리의 국가를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을 생각하며 스스로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외국인들의 사인요청에 "KOREA와 손긔졍"으로 사인을 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베를린올림픽기념 공식엽서와 우승자 사인 판에 사인한 <그림 4>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림 4> 좌측의 공식엽서를 보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우승한 뒤 친필로 서명한 독일 엽서로서 뒷면(위)에는 "marathon, K. Son, 손긔졍. KOREAN, 1936 15. 8"이라 되어 있고 앞면(아래)에는 베를린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의 그림과 1936년 8월 16일자 소인이 찍혀있다. 또한 우측의 베를린올림픽 우승자 사인 판에는 "K. C. Son 손긔졍"이라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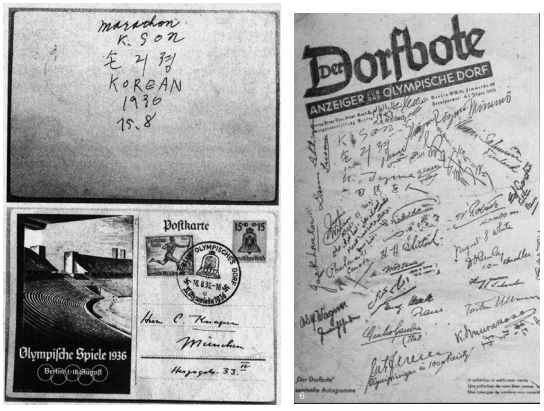

그림 4. 베를린올림픽 공식엽서와 우승자 사인판
출처: 조선일보 2003년 11월 25일자(좌), 강형구 · 이준승(2004). 손기정이 달려온 길. 서울셀렉션. 48(우).

손기정의 한글이름 사인에 대해 이준승(손기정의 외손자, 손기정 기념재단 사무총장)은 김은배선수가 1932년 제10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에서 김은배라고 한글로 쓴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양정이란 학교자체가 민족주의 민족사관이거든요. 이미 여기서는 민족주의 성향들을 계속 교육을 해왔던 것이고요. 여기에 손기정선수와 양정의 교육적인 측면이 잘 맞은 것이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손기정식 표현이 나갔는데 사실 사인을 하실 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사인을 할까? 베를린에 출발하기 전 한문을 쓰신 것 같아요. 손기정은 이래서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베를린에서는 한글로 손기정이라고 쓴 것이고 그건 계속 남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간 것은 거기에 코리아라고도 하고 코리언이라고 하면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은 사실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렸을 겁니다(이준승 면담, 2012. 4. 19).

이와 같이 손기정의 한글이름 사인은 선배인 김은배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민족학교인 양정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 민족주의 교육을 받은 영향도 매우 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자로 사인을 하다가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강조하기 위해 한글이름 사인, 한걸음 나아가 거기에 코리아 또는 코리언이라고 사인, 즉 손기정식 표현을 했던 것이다.

손기정의 우승은 당시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민족지도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미국의 이승만은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으며 중국에서는 장제스가 2억 인구의 중국인이 못한 일을 2천만 인구의 조선인이 해냈다며 놀랐다고 한다(이준승 면담, 2012. 4. 19).

손기정은 베를린에 거주하던 안봉근(안중근의 사촌동생)의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보게 되었다. 태극의 의미를 설명 듣고 숙연한 자세로 방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는데 안봉근은 손 선수나 남 선수가 저 태극기를 달고 뛰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소 하며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孫基禎 1976. 1. 24).

이처럼 손기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를 보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조국애와 민족의식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손기정이 베를린올림픽대회를 통해 자신이 느꼈던 심정을 회고한 다음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올림픽 마라톤 우승은 나 개인에게는 경기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주었지만 24세의 조선청년에게 조국에 대한 개념을 크게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다(孫基禎 1976. 1. 24).

그리고 손기정의 민족의식에 대해서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의 손기정 프로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거기에는 "당시 한국이 일본에 점령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이름으로 바꿔 올림픽에 출전할 수밖에 없었으며 손기정이 열렬한 민족주의자로 베를린올림픽 때 항상 한국이름으로 서명했고 어느 나라 출신이냐는 질문에 항상 한국은 독립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조선일보 2011. 12. 16).

그런데 손기정은 우승 후 시상대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과 KOREAN 손긔경이라는 사인 등 그의 자술적인 내용과 상반되게 일본에 건너가 메이지대학에 입학했다. 그 배경은 동아일보사 이길용 기자의 일장기 말살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1937년 양정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할 무렵 김태식(도쿄고등사범학교 체육과 졸업, 체육지도자)의 권유로 도쿄고등사범학교(현재 츠쿠바대학) 체육과에 입학하기 위해 시험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백림대회에 일장기를 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해 세계 마라톤왕의 명성을 획득한 양정고보 5년생 손기정이 도쿄고사(東京高師) 체육과 갑조(경기전공)의 시험을 봐 230명의 수험생들과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다. 마지막 실기시험은 (1월: 필자 주) 28일 오전 8시부터 행해졌는데 9시가 되어도 오지 않아 이틀간의 학과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기인 마라톤으로 간신히 달려온 손군, 방심해서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수험번호가 다행히 수험자 230명 중 뒤 번호였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어 농구의 기본동작과 풋볼을 했는데 과연 마라톤왕도 이것은 제멋대로여서 별로 좋지 않았다. 다음의 철봉에서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해 중학생다운 순수함을 보여 시험관도 미소 지으며 웃었다. 마지막의 달리기는 과연 시험관이 보고 배우고 싶을 정도의 당당한 포즈였다. 발표는 2월 중순이며 어쨌든 230명 중 합격 30명이라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험을 돌파할 수 있을지 동군이 무사히 성공해 3년 후의 도쿄올림픽에는 고사생(高師生)으로서 가뿐하고 민첩하게 등장해주길 기대한다(能勢岩吉, 1937).

이처럼 손기정은 베를린올림픽대회 우승 후 일본에서 최초로 체육과가 설치된 도쿄고등사범학교의 체육과에 응시해 자신의 육상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목을 받고 올림픽 마라톤 2연패의 기대를 받았으나 학과시험과 구기 및 체조시험의 성적이 좋지 않아 결국 낙방하고 말았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에는 올림픽 우승자에 대한 특별 입시전형과 같은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손기정의 시험에 대해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철봉에 매달린 모습을 찍어 마라톤왕 손기정 그러나 마라톤보다는 입시가 더 어려웠다고 기사를 실어 망신을 주었다(孫基禎, 1983).

그 후 손기정은 김성수의 덕택으로 보성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으나 입학환영회가 비밀집회로 간주되어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등 자신에 대한 감시로 인해 말도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대학 출신인 정상희(조선총독부 학무국)와 권태하(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주선으로 메이지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고두현, 1997).

이와 같이 손기정은 조선에서 안주하며 생활을 못한 이유는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본경찰의 감시가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악몽 같은 감시망과 눈초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해 주위의 도움을 받아 메이지대학에 입학했던 것이다.

결론

이 연구는 베를린올림픽대회를 통해서 손기정의 민족의식이 어떻게 발아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베를린올림픽대회 이전 손기정의 민족의식, 베를린올림픽대회와 손기정의 민족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손기정은 첫 공식대회인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경영마라톤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배우기 위해서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양정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 손기정은 응원사건으로 정학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 정학처분은 손기정의 민족의식을 싹트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손기정의 민족의식 발아는 올림픽후보 선발전에서 우승한 후 일본의 국가(國歌)에 강한 의문을 가지며 눈물로 호소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손기정의 양정고등보통학교의 입학은 자신의 목표인 올림픽제패의 실현은 물론 민족의식이 싹트는 시기로서 손기정의 인생에서 분수령이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베를린올림픽대회는 한국인 최초의 금메달 획득, 일장기말살사건 등으로 한국근대스포츠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회이다. 손기정의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 우승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우수성과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민족지도자들에게 당시 조선이 약소국으로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

베를린올림픽대회 우승 후 손기정은 사인요청에 "KOREAN 손긔졍"이라 해주며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조국에 대한 개념도 자각하게 되었다. 이는 민족사학인 양정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 민족주의 교육을 받은 영향 때문이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본 태극기는 손기정의 민족의식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다.

이상과 같이 손기정의 민족의식 형성은 양정고등보통학교 재학시절 응원사건으로 인해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정학처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한 베를린올림픽대회 우승 후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보고 조국의 개념을 자각했으며 한국인과 한글이름 사인으로 민족의식을 표출하면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강형구 · 이준승(2004). **손기정이 달려온 길.** 서울셀렉션. 48.

京城日報. 1931, 10월 17일.

경인일보. 2011, 9월 21일.

고두현(1997). **베를린의 월계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357-359.

金東煥(1940). 民族의 祭典. 三千里 12(8). 三千里社. 57.

동아일보. 1932, 3월 22일.

동아일보. 1936, 8월 11일.

동아일보. 1936, 8월 12일.

孫基禎(1983). **나의 祖國 나의 마라톤-孫基禎自敍傳**. 韓國日報出版局. 54-56, 89, 170.

孫基禎(1936). 世界記錄突破後. **新東亞 6**(1). 新東亞社. 32.

孫基禎(1976, 1월 10일). 應援事件. **그때 그일들** 7. 동아일보.

孫基禎(1976, 1월 22일). 勝利의 月桂冠을 쓰고. **그때 그일들** 17. 동아일보.

孫基禎(1976, 1월 24일). 옹졸한 日本의 處事. **그때 그일들** 19. 동아일보.

손환(2004). 손기정의 생애와 스포츠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3**(2). 한국체육과학회.

스포츠투데이. 2002, 11월 16일.

新東亞社編輯部(1936). 一流選手座談會. **新東亞 6**(1). 新東亞社. 56.

李丙權(1983). **養正體育史**. 養友體育會. 192.

이인숙(1996). **東亞日報 日章旗抹消事件에 관한 小考**. 한국올림픽성화회.

이준승 면담. 2012년 4월 19일.

정찬모(1997). 孫基禎 選手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制覇. **體育史學會誌 2**. 韓國體育史學會.

조선일보. 2003, 11월 25일.

조선일보. 2011, 12월 16일.

조선일보. 2012, 2월 10일.

朝鮮日報社編輯部(1936). 마라손王 孫南兩君의 戰捷記. **朝光 2**(9). 朝光社. 222, 231.

황영조(1998). **마라토너 孫基禎의 生涯와 思想**. 고려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加藤博夫(1984). **現代体育・スポーツ大系 第6巻**. 講談社. 309.
鎌田忠良(1988). **日章旗とマラソン.** 講談社. 38-40, 45-46, 47, 163-164.
能勢岩吉(1937). 孫基禎選手高師へ志す. **朝鮮行政 1**(2). 帝國地方行政學會. 196.
森田芳夫(1936). 孫選手のマラソン優勝と日章マーク抹消事件. **綠旗パンフレット 5**. 綠旗聯盟. 2-3.
陸上競技研究會(1936). **伯林オリムピックの全貌**. 一成社. 197.
陸上競技研究會(1936). 特輯グラビア版伯口繪林. **陸上競技 9**(2). 一成社. 10.

논문투고일: 2013. 01. 21
논문심사일: 2013. 02. 05
심사완료일: 2013. 03. 20